창건 40년 관음사, 군산제일 도량 서원



허허벌판과 다름없던 군산 나운동에 전법과 기도수행 도량으로 창건한 관음사가 창건 40주년을 맞았다.

군산 관음사(주지 도천)는 10월 28일 창건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창건주 재곤 스님의 창건이념인 전법과 나눔, 기도수행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창건주 재곤 스님과 선운사 한주 법현 스님, 광주 지장암 서경 스님, 고창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 선운사 기획실장 대선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천 스님은 "40년 전 미래를 내다보시고 전법도량을 창건한 재곤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허허벌판과 다름없는 이곳에 관음사를 창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회고하고 "관음사가 군산제일의 기도수행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합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옥련암, '평화' 화두 음악으로 나눠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가 도량입구에 줄지어 불자들을 맞이하는 완주 옥련암(주지 일감)에서 지역주민들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평화음악제가 열렸다.

완주 옥련암은 10월 28일 대웅전 앞 은행나무 그늘아래 특설무대에서 '은행나무 멋있는 날 가을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 가을, 평화를 말하다'하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 도법 스님과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의 길을 걷고 있는 '4·16 평화순례단'이 동참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평화를 주제로 한 대화 중간 '이창선과 대금스타일'과 국악인 최정희가 출연해 대금 연주 등 전통국악공연과 판소리를 선사했다. '평화 꽃피어라'라고 적힌 깃발이 휘날리는 대형솟대와 곳곳의 평화를 기원하는 소원지가 달린 평화의 등에는 참석자들이 각자 평화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담았다.

이날 평화한마당은 도법 스님의 '평화 한 말씀', 평화 소원지 달기,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와 예불, 평화 모닥불 축제, 이승호 작가의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위안부피해자 위령 천도재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천도재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10월 31일 광주 서구청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피해자 영가를 위한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천도재는 최근 서구지역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조성한 '평화의 소녀상'을 기념해 열렸다. 행사에는 월인 스님, 혜령 스님, 호산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과 임우진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 참여해 위안부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불교 전통의식의 전승과 후학 육성과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전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시연으로 신중작법, 지장청, 화엄시식 등이 열려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캄보디아 오지에 전한 감로수

태고종 (사)나누우리 초교 식수대 추가 착공



(사)나누우리 임원진 스님들이 트라치 초등학교에 9호 식수 정수대를 설치하기 위해 첫 삽을 떴다.

자비실천 나눔도량 (사)나누우리가 캄보디아 오지의 초등학교에 9호 식수 정수대를 설치한다.

나누우리 부이사장 만우 스님(밀양 법성사), 상임이사 묵원 스님(통영 보현사), 봉사단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해외구호담당이사 청공 스님(아산 영원사), 대외협력이사 자우 스님(남해 금왕사), 국내구호 담당이사 진송 스님(대구 혜인정사) 등 임원진은 10월 21~25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방문해 기존에 설치된 8곳의 식수 정수대를 점검하고 9호 식수대 설치학교인 트라치 초등학교에서 식수 정수대 착공식을 개최했다.

임원진은 기존 8곳의 식수 정수대 설치 초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식수 정수대를 이용하고 있어 6개월 단위의 필터 교체가 2개월 정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9호 식수 정수대 설치학교로 선정된 트라치 초등학교는 씨엠립주의 시골학교로 교사 4명이 학생 200명을 가르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나누우리 임원진들은 교장 등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높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며 청결상태 등 향후 정수대 유지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이에 나누우리는 지하수개발 업자 선정과 식수 정수대 공사업체, 정수기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외에 산청 왕복사 자우 스님은 자체적으로 훈센 쁘레아앙톰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관정과 식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누우리 임원진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전거 100대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훈센 쁘레아앙톰 초등학교는 씨엠립 시내에서 2시간 버스를 타고 산 입구에서 학교까지 무려 1시간을 더 걸어가야 하는 곳으로 전기시설도 없이 인근 산골마을 어린이 400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번 나누우리 캄보디아 방문단은 첨단 설비와 보완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캄보디아 씨엠립주에는 49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외곽지역의 학교는 전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빛 물든 내소사 산사음악회

'우리절 우리마을' 주제 지역공동체 문화잔치로



내소사는 10월 28일 경내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대웅전 꽃살무늬 단청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에서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내소사는 10월 28일 가을 단풍색이 점차 짙어가는 수령 1,500년 된 당산나무와 산사의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부안,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우리절 우리마을, 삶의 고향'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일주문에서 전나무숲길을 따라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진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통 현악의 아름다운 소리를 머금고 있는 거문고 독주, 대금, 거문고, 장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남도 굿거리, 외손대금 독주에 이어 국악 퓨전앙상블 '흘림'이 출연해 관객들과 호흡하며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선보였다. 또한 모던 포크가수 주권기가 출연해 우리 귀에 익숙한 빠른 템포의 포크음악을 선사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은 '무조건' '자옥아' '황진이' 등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운집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내소사 산사음악회는 지역주민과 내소사의 상생관계를 잇는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문화잔치"라며 "전통음악과 산사의 멋을 빛내주는 음악회를 통해 힐링과 휴식,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날 내소사 경내에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단청 그리기 체험, 연꽃 만들기 체험, 전통차 시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안지역 먹거리와 특산품을 체험할 수 있는 나눔장터가 열렸으며, 설선당과 봉래루에서는 관음조의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보물 291호 내소사 대웅전 단청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민 평안 기원 무등산 산신재 열려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주최

자연환경 보존과 광주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무등산 산신재가 열렸다.〈사진〉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증현)는 10월 30일 무등산 입구인 문빈정사 앞 잔디밭에서 동구지역 회원사찰들과 박주선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산신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인사말, 축사, 발원문(선묘 스님), 산신청, 산왕대신정근, 축원과 2부 음악회가 열렸다.

회장 증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의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은 광주의 자랑이자 광주불교의 모태와 같은 산"이라며 "이번 산신대재는 우리 민족의 살아가는 지혜를 되살려 광주의 풍요와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다. 또한 많은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종립 정광고교 사찰서 템플스테이

청소년들이 불교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교종립학교 정광고등학교(교장 임형칠)는 10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1·2학년 868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행사는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금산사, 선운사 등 17개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정광고등학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역사문화를 배우는 한편, 학급별 활동을 통해 친구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는데 의미를 뒀다"고 행사 취지를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